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하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어떻게 하나?

며칠 전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의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독감백신 접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이 곧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이 발표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방역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접종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백신은 2-8°C사이에서 보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빛에도 노출을 최소화 해야하고, 백신냉장고에서 백신을 꺼낸 후 즉시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상반응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백신의 보관이 규정에서 이번처럼 위배가 되는 경우 백신이 노출된 온도와 시간을 측정하여 백신을 만든 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이후에 사용결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고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사백신의 경우 상온에 노출된 되었을 때 접종 후 의학적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역당국의 발표를 신뢰하고 따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월 중순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었다. 당시에 국내에서는 많지 않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우리의 기억속에서는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을 짧게나마 경험한 바가 있다. 2019년-2020년 인플루엔자 유행은 최근 10년동안 유행 중에서 가장 약한 유행양상을 보였다. 이유는 아동청소년들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일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을 한 후 개인위생 관리, 마스크 사용으로 인하여 인플루엔자의 유행은 길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의 기억속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기억에 남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상처가 크게 남아 있지 않는 것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2주후 부터 항체가 생기고, 4주가 되면 최고치에 도달하며 이후

감소가 되어 약 6개월간 지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 유럽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접종 후 3개월이 되면 접종의 효과는 사라진다고 한다. 또 노인들의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한다고 하여도 항체가 잘 안생기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의 수요는 많으나 수요만큼 생산을 못하였으므로 방역당국이 정한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트윈데믹을 경험한 바가 있다. 우리가 얻은 경험으로 바탕으로 생각하면 백신접종의 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가장 좋은 백신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마스크 사용이었다. 그리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되고, 사람들간의 접촉이 줄어들어서 인플루엔자 유행은 심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역시 문제가 되기는 한다. 따라서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불안하게 생각할 이유는 아직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아동 청소년들은 감염자 발생도 많지 않고,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가볍고 합병증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가 될 것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것이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은 시행착오에 비난을 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방역당국의 발표를 믿고 따라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신뢰를 가져야 트윈데믹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도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할 것이다. 트윈데믹의 상황이 다가오지만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잘 버티어 온 경험으로 또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